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25권 3호(2012年 8月)
J. Oriental Medical Classics 2012:25(3)57-78

Orignal Article

# 『醫林』誌를 통해 살펴본 1950년대 동서의학 논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1]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2]
**이태형[1] · 김태우[2] · 김남일[1*]**

# The Medical Dispute between Korean and Western Medicine in 1950s Examined through 『EE LIM』

Lee Tae-hyung[1] · Kim Tae-woo[2] · Kim Nam-il[1*]
[1]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Dep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Although the government acknowledged Korean Medical Doctors as official health care providers since 1951, criticism regarding its modernity persisted. This paper focuses on the medical dispute between Korean and Western Medicine in 1950s risen from the problem of modernization of Korean Medicine.

**Method:**

This paper looked into the medical dispute between Korean and Western Medicine in 1950s through 『EE LIM』. 『EE LIM』 is a scholarly journal published by Korean Medical doctor Bae Won-Sik. Articles regarding the medical dispute between Korean and Western Medicine were selected, categorized and analyzed.

**Result:**

The main questions against Korean Medicine were: whether it was scientific or not, and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of systematization. Several opinions were brought up on these issues.

1) Some people criticized Korean Medicine as being unscientific based on modern science.

2) Others emphasized the identity of Korean Medicine against the critics.

3) Another group of people wanted to study Korean Medicine using modern methods and obtain merits from both sides.

**Conclusion:**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term 'science' led to diverse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Korean Medicine's progression. The narrow meaning of science only considers Korean Medicine as an object of modern scientific and medical study. But if the meaning is broadened, containing empirical aspects, Korean Medicine can be included as a category of science based on its clinical utility.

**Key Words** : EE LIM, Medical dispute between Korean and Western Medicine, scientification, systematization, modernization



www.kci.go.kr

# Ⅰ. 서론

1951년 9월 25일, 한의사 제도가 포함된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국회에서 공포되었다[1]. 한의사들이 의사, 치과의사 등과 동등한 의료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의사들은 의생규칙의 반포로 인하여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서의 격하된 지위만을 지닐 수 있었다. 또한 의생규칙의 시행 이후 한의학 교육기관의 설립, 한의사 단체의 설립 등도 제한되는 등 전통의학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1945년 해방 후,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한의사 제도가 제정된 것은 한의사들에게 있어 의사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의사 제도가 확립되었던 시점에도 한의학에 대한 비판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로의 발돋움을 지향했기 때문에 의료제도 역시 근대성의 범주 안에서 논해져야만 했다. 한의학은 해방 후 민족 의학적 가치와 대중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체제의학[2]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3] 일제 강점기 당시로부터 이어져 온 한의학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셈을 알 수 있다.

그 비판의 핵심은 한의학의 과학성 여부와 체계화 가능성이었다. 당시 양방의학은 해부학과 생리학 등을 토대로 인체를 이해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근대 과학의 산물임이 강조된 반면, 한의학은 그 이론이 사변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단순히 경험 의학적 가치만을 지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기존 한의학의 체계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그 자체의 정합성이 떨어지며, 나름의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학이 의료로서 역할 하기 위해서는 근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어 새로운 체계를 구성해야만 했다. 당시 한의계 안팎에서는 한의계를 향한 비판들로 인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특히 한의사 제도가 탄생된 이후, 적어도 의료법에 의해서는 한의학이 양방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의학의 현대화 방안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醫林』誌를 통해 1950년대에 있었던 동서의학 논쟁[4]을 살펴보고자 한다. 1951년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1962년 개정의료법[5]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해방 이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동서의학 논쟁의 초창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醫林』, 『東方醫藥』과 같은 한의학 학술잡지와 東洋醫藥大學의 교지였던, 『東洋醫藥大學報』, 그리고 각종 신문 매체 등이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이들 자료 가운데 『醫林』誌를 토대로 한의사 제도의 확립 이후 있었던 한의학의 현대화 논쟁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E-mail : southkim@khu.ac.kr Tel : 02-961-0671
Fax: 02-961-0671
접수일(2012년 7월 20일), 수정일(2012년 8월 9일), 게재확정일(2012년 8월 17일)

1) 맹웅재 외. 한의학통사. 경기도. 대성의학사. 2006. p.516.
2) 체제의학은 'conventional medicine'과 같은 의미로, 사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태형. 보완대체의학 및 통합의학의 정의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1.
3) 1951년의 국민의료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정기용. 해방 후 한의사 제도 성립 과정 -1951년 국민의료법 법안 제정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 여기서의 '동서의학 논쟁'은 한의학의 현대화 논쟁을 의미한다. 한의학을 현대화하는 문제는 당시 한의계의 당면과제였다. 이때 양방의학은 한의학의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한의학은 양방의학과의 관계 속에서 현대화 방안이 논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의학의 현대화 논쟁을 동서의학 논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5) 맹웅재 외. 한의학통사. 경기도. 대성의학사. 2006. p.534.
6) 『醫林』은 裵元植에 의해 1954년 창간되어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한의학 학술잡지이다. 『東方醫藥』은 대한한의사회의 기관지로 1955년 창간되었지만 재정난으로 휴간되었다. 이후 1957년에 『東方醫藥』이라는 이름으로 재발간 되었지만 이마저도 1959년 폐간되고 말았다. 한편 『東洋醫藥大學報』는 1957년 창간된 동양의약대학의 교지로 동양의약대학의 학예부의 주도로 간행되었으며, 1965년 동양의약대학이 경희대학교에 합병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1951년 한의사 제도 탄생 후 가장 이른 시기부터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醫林』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 Ⅱ.『醫林』에서 살펴 본 동서의학논쟁

한의사 裵元植이 설립한 醫林社에서 간행한『醫林』은 1954년 창간되어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한의학 학술잡지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의계의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어 해방 이후 동서의학 논쟁을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대한한의사회의 기관지였던『東方醫藥』이 나오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醫林』이 한의계의 기관지로서의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裵元植의 創刊辭[8]에서 알 수 있듯이『醫林』은 근대과학과 이에 근간한 양방의학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의학 또한 현대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배원식은 한의학을 양방의학과의 관계 속에서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한의계가 해결해야할 시대적 사명인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근대과학에 의거하여 한의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한 입장들이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한의학의 정체성을 강조한 주장들도 있었다. 한편 한의학을 현대적 방식으로 연구하여 양자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었다. 아래에서 이들 주장들을 근대과학 강조, 한의학 정체성 강조,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및 현대화의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1. 근대과학 강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한의학이 양방의학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醫林』의 창간 목표에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다.『醫林』의「創刊辭」를 살펴보자.

> 本誌는『醫林』이라 題하야 오늘 呱呱의 聲을 올렸다. 우리가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의학 역시 오랜 역사를 지녔으니 우리 문화와 함께 발달 진보한 것은 물론이다. …(중략)… 이러한 법칙에 의한 발달을 거듭한 금일의 과학은 마침내 인류생활에 변혁을 齎來하였고 우리 의학에 커다란 혁명을 초래하였으니 즉 해부학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달을 본 서양의학은 치료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한방의학의 영역에 浸透肉薄하여 온 것이다. …(중략)… 우리가 이제 이 양의와 比肩併進하려면 그 方略은 종래의 陰陽五行相生相克의「神秘한 帳幕」으로 방어함에 있지 않고 이「신비한 장막」을 걷고 과학을 도입 섭취하는데 있다. 이러한 시대적 또 현대적 요구에 卽應하여 새로운 전략적 □陳의 일역이 되고자 본지가 이에 발족하는 것이다[9].

배원식은 근대 과학에 바탕을 둔 양방의학이 당시 한의학계에 미친 영향을 '浸透肉內'라고 표현하였다. 그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을 대처할 한의계 내부의 방안 수립이었다. 배원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리가 이제 이 양의와 比肩併遷하려면 그 方略은 종래의 陰陽五行相生相克의「신비한 장막」으로 방어함에 있지 않고 이「신비한 장막」을 걷고 과학을 도입 섭취하는데 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한의학이 변화의 흐름을 수용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陰陽五行相生相克과 같은 한의학 이론에 있어서도 신비한 것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를 해석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주장되었던 한의학의 과학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아래에서 이

7)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경기도. 도서출판 들녘. 2011. pp.234-236.
8) 裵元植. 創刊辭. 醫林. 1954. 1호. p.1.
9) 원문 인용 시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필자가 윤문하였으며, 그 본래의 글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경우 '□'로 표기하였다. 아래도 이와 같다.
裵元植. 創刊辭. 醫林. 1954. 1호. p.1.



www.kci.go.kr

표 1. 초창기『醫林』에 실린 '근대과학 강조' 관련 글들 목록

| 연도 | 권호 | 제목 | 필자 | 분류 |
|---|---|---|---|---|
| 1954 | 1호 | 創刊辭 | 裵元植 | 기타 |
| 1955 | 5호 | 今後漢醫學의 展望 | 趙玄成 | 1) 과학적 체계화의 필요성 |
| 1956 | 13호 | 世界文化와 東方醫學 | 金庚烈 | 1) 과학적 체계화의 필요성 |
| 1958 | 14호 |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上) | 李殷八 | 2) 한의학의 이론 체계 비판 |
| 1958 | 15호 | 내가 본 漢方醫學 | 金衡翼 | 1) 과학적 체계화의 필요성 |
| 1958 | 16·17호 | 漢方醫學의 歷史的由來(上) | 許松菴 | 2) 한의학의 이론 체계 비판 |
| 1958 | 18·19호 | 神秘主義醫學의 批判과 漢醫學의 去就 | 車日甫 | 2) 한의학의 이론 체계 비판 |

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자. 1954년부터 1961년까지『醫林』에 실린 근대과학을 강조하는 입장의 글들의 목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1) 과학적 체계화의 필요성

한의학 연구에 있어서 근대과학을 강조했던 주장 가운데 하나로 '한의학의 과학적 체계화'가 있다.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각 학문 영역은 신비의 영역에서 벗어나,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특히 당시 기준이 되었던 미국에서의 근대 의학은 각 의과 대학의 실태를 해부학과 생리학 교육, 그리고 임상 수련의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표준화된 의학교육과 임상체계를 확립함으로 이루어진 것[10]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체계적 의학 형태를 구성하지 못했던 당시 한의학계는 한의학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었다. 학문적 체계화에 대한 강조는 한의학의 과학화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한의학의 체계화 방법은 한의학의 학문적 기준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근대 의학이 해부학과 생리학을 기준으로 근대 의학 교육의 틀을 구성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한의학은 한의학적 기준을 통해 표준화된 체계를 수립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 과학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당시로서는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한의학의 체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보다 근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1955년,『醫林』5권에 수록된「今後漢醫學의 展望」이라는 글을 살펴보자. 저자인 趙玄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의학 연구에 있어 자연과학이 중요함을 표명하였다.

> 그러나 생각하여 보건데 우리 풍토가 지닌 환경이니 지금 자연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의 우리는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느냐. 오늘날 우리의 태고적인 철학이 이십세기의 오늘에 비추어 食□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자연과학을 망각한 한의학이 앞으로 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생각하여 우리 한의학계의 선배선생님들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아니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한의학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비통하여 가슴 아픔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보건데 우리 한의학의 불안전과 비과학이며 현대과학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현하 자연과학이 최고도 발달된 오늘날의 양의학계에서 지금이 한의학을 非□的이라 하여 중상, 모략, 기타 등등의 행동을 취하여 한의학을 말살시키려함도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의학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

10)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on)에 의해 설립된 의학교육협의회(CME, Council on Medical Education)는 1906년 미국의 155개 의과 대학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화된 의학 교육 형태를 확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1910년에는 Abraham Flexner에 의해 Flexner Report라고도 불리는『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www.kci.go.kr

> 니까. 앞으로의 우리 한의학은 자연과학을 망각하여서는 진정코 이 이상 더 존재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11].

趙玄成의 글을 보면 당시에 비록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한의계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거셌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연과학을 망각한 한의학이 앞으로 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생각하여 우리 한의학계의 선배선생님들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아니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한의학이 자연과학과 더불어 학문을 발전시켜오지 못함을 통탄하였다. 또한 그는 "앞으로의 우리 한의학은 자연과학을 망각하여서는 진정코 이 이상 더 존재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여 앞으로의 한의학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통해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金庚烈은 그의 글「세계문화와 동방의학」에서 문화를 크게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로 나누어 말하였다. 두 문화 각각에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당시 동방의학이 존폐의 위험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현대화 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양의학계에서는 한의학을 두고 "東醫學은 고색찬연한 골동품이다. 陰陽論 또는 五行論 등은 다 비과학적이다. 풍한서습론도 비세균학적이다.", "無論理無體系"하다는 비판을 일삼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金庚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였다.

> 1. 한의학을 현대화 시키도록 적극적 노력할 것인데, 즉 논리학적 체계와 과학적 분류와 세균학적 또는 현미경적 표현 등
> 2. 祖傳秘方 及 新體驗妙方 등을 공개 발표할 것
> 3. 학술적으로 단결하여 연구 발표하는 기관과 후배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완비를 企圖할 것[12]

金庚烈이 제시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언급되어 온 한의학의 비과학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의학에는 논리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의학이 陰陽論, 그리고 五行論 등을 토대로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들을 과학의 범주 안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한의학은 과학의 체계와 분류, 그리고 세균학 등으로 인해 해석되어야 하는 연구의 대상이었다. 한의학이 "無論理體系"라고 하였던 양의학계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의학 내부에서 신비한 것으로 여겨 밝히지 않은 지식들을 밖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소위 '秘方'이라는 것들을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 석상에서 연구되어 그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의학의 현대적 연구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근대적 한의학 교육기관의 필요로 연결되었다.

『醫林』15호에 실린 金衡翼의「내가 본 漢方醫學」[13]은 한의계 외부 인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 말미에는 "筆者는 醫師時報社長·醫學博士"라는 소개 문구가 들어가 있어 그가 '醫師時報'의 사장이며, 의학박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金衡翼은 의사이지만 과거 한방과 양방을 함께 치료에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우선 한방의학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한의학이 비과학적이고 경험적이라는 비판들이 있지만 한약 치료에는 극히 과학적인 분야가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학계는 한의약학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같은 글에서 한의학의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체계 확립 방법은 한의학의 과학성 탐구를 통한 것이었다. 한의학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재래의 難澁에서 벗어나 진정코 대중적 과학성 있는 과학체계 밑에 斯界의 발전"을 일구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의학의

11) 趙玄成. 今後漢醫學의 展望. 醫林. 1955. 5호. p.4.

12) 金庚烈. 세계문화와 동방의학. 醫林. 1956. 13호. pp.7-8.

13) 金衡翼. 내가 본 漢方醫學. 醫林. 1958. 15호. p.6.



www.kci.go.kr

가치를 인정했지만 '과학적 시각'에서 한의학에 인정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한의학은 과학적 체계화를 통해서만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한의학의 이론 체계 비판

앞에서 한의학의 과학적 체계화를 주장했던 기저에는 한의학의 내부적 이론 체계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였다. 한의학이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이론 체계가 근대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李殷八은『醫林』, 14호에 실린「漢醫學에 對한 새로운 思考方式(上)」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의학이 양방의학에 비해 위축된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였다.

> 한방의학 침체의 원인을 대별하여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
> 객관적 요인으로는 일제통치 사십여 년의 한방의학말살 정책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일제는 한반도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자 서의학과 한방의학을 대체케 함으로써 한국인 고유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변혁을 야기케 하고 저들이 가장 완고한 계층이라고 인정하였든 한방의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억압코저 하였든 것이다.
>
> 주관적 요인으로는 첫째 한방의학 자체의 난삽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한방의학은 그 병리에 있어서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한방의학의 병리총론이라고 볼 수 있는 소문 자체가 현대인의 두뇌로는 졸연히 이해하기 곤란한 자구의 나열이란 비평을 면치 못할 형편이고 爾餘諸書가 또한 착잡 혼돈하여 依憑할바 準繩을 찾지 못할 실정이다. 그럼으로 斯道에서 다년간 硏鑽을 거듭하고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도「難哉 難哉」의 탄식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고인의 처방을 墨守하기에만 급급하게 되어 새로운 학설과 到底한 연구가 있을 수 없게 되었든 것이다[14].

이은팔은 한의학 침체의 객관적인 요인으로 "일제통치 사십여 년의 한방의학말살 정책"을 지적하였다. 식민지 시대 의료 정책으로 인해 한의학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인(한의계 내부의 요인)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한방의학 자체의 난삽성"이었다. 그는 한의학이 병리에 있어서 체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방의학의 병리총론이라고 볼 수 있는 소문자체가 현대인의 두뇌로는 졸연히 이해하기 곤란한 字句의 나열이란 비평을 면치 못할 형편이고, 爾餘諸書가 또한 錯雜混沌하여 依憑할 바 準繩을 찾지 못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의 이론이 복잡하고, 여러 의서마다 그 내용이 통일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은 서의들에게 비과학적이란 비난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가 지적한 또 다른 요인은 한의사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종래의 한의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가난한 儒生들이거나 선인의 약방에서 조제에 종사하다가 약간의 문견과 경험으로 의약을 개시하는 자가 있기도 하였고, 또한 여러 권의 의서를 열독한 다음 스스로 의사로 자처하는 자가 있는 등의 예를 들기도 하였다.

許松菴은『醫林』16·17호에서「漢方醫學의 歷史的由來(上)」라는 글[15]을 통해 한의학 이론이 무비판적으로 맹종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가 보기에 陰陽의 개념이 한방의학의 기초가 됨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의학의 이론적 개념이 현학자나 철학자인 척하는 음양 술수 점괘나 혹은 사주관상가들이 길거리에서 무위불식의 도구로 혹세무민하는 것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한의계는 한의학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실증적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근대적 과학화를 일구어 내야 했다.

車日甫는 한의학의 이론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였

14) 李殷八. 漢醫學에 對한 새로운 思考方式(上). 醫林. 1958. 14호. pp.10-11.

15) 許松菴. 漢方醫學의 歷史的由來(上). 醫林. 1958. 16·17호. pp.19-22.



www.kci.go.kr

다.『醫林』18·19호에 수록된 그의 글「神秘主義醫學의 批判과 漢醫學의 去就」를 보면 그가 한의학이 "선험적 공론으로 彌縫된 이론과 玄妙하고 深幽하며 신묘한 철학적 가설"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함을 알 수 있다. 그는 한의학이 현 시대에 생명을 치료하는 의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였다.

> 天地間을 그치지 않고 循環 流轉하는 五元素 즉 五行과 이에 따르는 五行의 相生과 相克, 또 인체에 일어나는 陰陽을 消長이 전부가 철학적인 가설이요 선험적인 공론으로 미봉된 이론에 불과하다. 또 漢醫學은 風熱濕氣 등 玄妙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현상의학이며 동양적인 신비와 심미적인 諸속성을 탈피하지 못한 원시적이며 경험적인 체계의학에 불과하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로 존재위치와 조직체에의 친화성이 다른 각양각종의 熱(原起素인 熱)의 제거에 있으며 原起素인 熱을 제거하므로서 의학적 변질을 일으킨 조직기질도 자연히 치유되고 생화학적 기반을 가진 한의학은 또한 생리조직체의 배양증진을 일으켜 드디어 세균의 거주지를 극탈하여 세균을 자연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중 親和的浸解로 이해했다.
>
> 일견 계통적이며 체계적인 감을 주나 주관적이며 신비적인「氣」즉 생명력 내지 활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가설적인 체계를 가진 원시적 의학과 다른 점은 볼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원시적 의학에 속하는 한의학의 고전을 그대로 현대 해석만 가해서 현대적 과학의학에 對肩하려는 것은 前學問的이며 이로서 만족하다는 것도 망상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 따라서 고전에 현대적인 해석만 加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대의학의 객관성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 도입을 위해서는 氣熱三焦의 과학적 개념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溫故而知新으로 새로운 차원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16].

車日甫는 한의학의 이론적 요소가 고대 질병의 신비적 해석과 같이 전부가 철학적인 가설이며 선험적 공론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때문에 그는 한의학을 "玄妙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현상의학이며 동양적인 신비와 심미적인 諸속성을 탈피하지 못한 원시적이며 경험적인 체계의학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또 한의학 자체로 계통이 있으며 체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관적이며 신비적인「氣」즉 생명력 내지 활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가설적인 체계를 가진 원시적 의학과 다른 점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따라서 "원시적 의학에 속하는 한의학의 고전을 그대로 현대 해석만 가해서 현대적 과학의학에 對肩하려는 것은 前學問的이며 이로서 만족하다는 것도 망상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氣, 熱, 三焦 등을 과학적 개념으로 확립하여 합리적인 근대과학(의학)의 객관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결코 우리는 우리 한방의가의 약방에서 현대의학의 도입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서양 과학 주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의 "현대 합리적 의학의 照射로서 부셔지는 한의학은 원시적인 한의학에 근대적 합리적 과학의 도입으로서 치료될 것이다."라고 한 부분에서 한의학의 해체와, 이의 현대 과학적 재조합을 주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한의학 정체성 강조

한의학의 비과학성을 지적하고, 한의학의 이론체계를 부정했던 주장들은 한의학 본연의 가치를 중요시했던 연구자들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이들은 한의학이 임상의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의학은 양방의학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과학적 체계화를 좇지 않더라도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가 가능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16) 車日甫. 神秘主義醫學의 批判과 漢醫學의 去就 醫林. 1958. 18·19호. pp.9-14.



www.kci.go.kr

표 2. 초창기『醫林』에 실린 '한의학 정체성 강조' 관련 글들 목록

| 연도 | 권호 | 제목 | 필자 | 분류 |
|---|---|---|---|---|
| 1954 | 1호 | 漢醫學에 對한 考察 | 白泰炯 | 1) 한의학의 특성 강조 |
| 1955 | 4호 | 漢醫學體系樹立小考 (陰陽五行의 氣化學과 生理學의 關聯性) | 姜永熙 | 2)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 |
| 1955 | 10호 | 陰陽學의 現實性 | 崔海鍾 | 1) 한의학의 특성 강조 |
| 1955 | 12호 | 내가 본 漢方醫學 | 咸錦聖 | 1) 한의학의 특성 강조 |
| 1955 | 12호 | 命門三焦圖理解의 基礎槪論(一) | 姜承熙 | 1) 한의학의 특성 강조 |
| 1958 | 15호 |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下) | 柳大馨 | 2)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 |
| 1958 | 22·23호 | 虛實論에 對하여 | 洪一善 | 1) 한의학의 특성 강조 |

1954년부터 1961년까지『醫林』에 실린 한의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글들 목록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 1) 한의학의 특성 강조

한의학이 근대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의학의 근대 과학화는 한의학의 특이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임상의학적 가치를 저해한다는 반박도 거셌다. 한의학이 현대에 가치가 있는 것은 임상적 효용성 때문일 텐데, 한의 임상에 필수적인 한의학적 기준조차 인정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한의학의 활용은 요원하다는 주장들이었다.

『醫林』1호에는 白泰炯의「漢醫學에 對한 考察」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白泰炯은 이 글에서 한의학의 특성을 토대로 한의학이 현재에 어떻게 현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는 양방의학이 전래되면서 한의학이 충분한 근거 없이 비판받아왔음을 지적하였다.

> 한방의학이 동양철학적 이념에서 우주만상이 운행 변전함에 따라 인간 자체의 생활기능에 대한 변동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 혹자는 비과학적 의학이라고 하여 심지어는 미신적 의학이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한의학의 진수를 이해치 못하는 자의 폭언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 가장 발달된 현대의학의 범주 외에 있는 개척할 여지를 남겨 논 것에 틀림없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17].

그는 한의학의 원칙을 "인체의 질병은 천체운행에 부합하는 즉, 병리의 기초를 陰陽五行의 학설로서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한의학의 논리는 일제 식민 치하 40여 년간 한의학을 비문명적인 의학으로 많은 제약을 가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의학의 임상적 효과는 부정할 수는 없으며, 한의학의 임상 효과는 현대적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의학의 치료원칙을 陰陽五行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졌다.『醫林』10호에 실린「陰陽學의 現實性」이라는 글에서 崔海鍾은 "醫道는 陰陽을 떠나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이 陰陽의 진리는 의학의 원리를 형성하는 것임으로 執證投藥이 이 원칙을 떠나는 법이 없는 것이며 여기서 추행된 五運六氣論은「儒之道 博約而已」란 원리로서 時疾, 輸症에 據理投藥하면 應效如神 한 것이 실제상 드러나는 것이다. …(중략)…
> 이 원리와 실효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비과학, 비과학이라 하고 비난하

17) 白泰炯. 漢醫學에 對한 考察. 醫林. 1954. 1호. pp.3-4.



www.kci.go.kr

나니 원래 철학이란 과학에 합치되지 않으면 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사오천년 이래 임상, 대증, 투약이 어느 정도 과학적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만일 과학이 아니라면 이는 공론에 그치고 臨證用藥에 하등 진효가 없을 것 아닌가. 사오천년래 臨證用藥에 경험적 진효를 거두었다는 것이 환언하면 한의학은 과학이라 함과 동일한 것이다[18].

崔海鍾은 陰陽의 진리는 매우 오묘한 것이 있는 반면에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陰陽의 개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그는 한의학이 사오천년간 임상 환경에서 효과를 보여 온 것은, 한의학이 과학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였다.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임상적 효용성을 과학성과 연결시킨다면 한의학의 과학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반면에 과학이라는 용어를 '치료기전의 해부생리학적 실증'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한의학의 임상적 효용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과학의 영역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한의학의 學理에 있어서 陰陽五行學說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陰陽五行學說에 근간한 한의학의 원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당시의 풍조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咸珍求는 「동서의학대론(3)」에서 이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전개하였다.

前記와 같이 동서의학은 不可相離됨이 원리인 즉 근래 의약업자의 통폐로 단지 其一之主義로써 自稼 名醫요 勝己者를 壓之하는 자 분리와 불만을 초래하나니 우선 한의학 업자의 통폐를 논하자면 신비적인 한방의학을 망각하고 한방업자의 대다수가 목전에 영리를 몰두하여 한의학의 학리를 연구할 생각을 염두에도 하지 않고 그 전 처방이나 혹은 소위 비방을 처방집에서 구해서 만병통치의 약을 구하려 한다. …(중략)…

우선 한의학을 배우려면 陰陽을 구분해야 되는데 한의학 원리에 대한 설명이 陰陽이니 五行이니 하여 그 용어가 비현대적이고 한의들의 설명이 또한 현대인에 이해하도록 하는 이가 적기 때문에 한의학 그 자체가 하등의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설명방법이 잘못되었든가 사람이 그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원리와 사실까지 부인될 수는 없다. 한의학을 알자면 陰陽의 원리를 알아야 하니 陰陽學이 근간이 되여 있으니 우주자연의 理法을 陰陽說로 설명하는 것이다[19].

咸珍求는 당시 한의학 업자들이 "목전에 영리를 몰두하여 한의학의 학리를 연구할 생각을 염두에도 하지 않고 그 전 처방이나 혹은 소위 비방을 처방집에서 구해서 만병통치의 약을 구하려 한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현실을 한의학의 퇴보라고 평하였다. 또한 "陰陽虛實도 分揀치 못하고 덮어놓고서 助陽藥과 助熱藥을 쓰는 것" 그리고 "병도 안보고 병세도 자세히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듣지도 않고 그저 和劑를 내고 약을 짓는 일" 등을 예로 들어 이것들이 한의학 상 「四診」을 전부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의학의 학리적 부분을 몰각하고 일상 언론에 비과학적 부분을 고조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제대로 한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陰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즉 陰陽, 五行과 같은 용어들은 그 자체가 비현대적이고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한의학의 원리를 구성하는 陰陽, 五行을 강조하면서도 한의학의 陰陽說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함을 주장하였다.

한의학의 이론적 특성에 대한 주장은 陰陽五行說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命門三焦學說', '虛實論' 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醫林』 12호

18) 崔海鍾. 陰陽學의 現實性. 醫林. 1955. 10호. p.4.

19) 咸珍求. 東西醫學對論(3). 醫林. 1955. 11호. pp.21-22.



www.kci.go.kr

에 실린 「命門三焦圖理解의 基礎槪論(一)」[20]이라는 글에서 姜承熙는 동양의학생리의 기본 원리를 命門三焦에 두어 설명하였으며, 『醫林』 22·23호에 실린 「虛實論에 對하여」[21]라는 글에서 洪一善은 虛實論을 중심으로 한의학 이론을 풀어내었다. 이 두 글의 특징은 모두 과학으로만 한의학을 접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계하였다는 점에 있다. 姜承熙는 과학의 방법으로만 한의학을 연구할 경우 아무리 한의학에서 중요시 하는 가치라고 하더라도, 당시 과학의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인정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洪一善은 한의학의 임상경험은 비록 근대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우수한 임상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 2)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

한의학의 근대화 요구에 과학화와 더불어 강조되었던 것은 체계화에 대한 것이었다. 의료가 국가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한의학 또한 하나의 의학 체계로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던 연구자들은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던 과학화로써 한의학을 근대 학문 체계로 재편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만으로 한의학을 연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학문의 왜곡을 우려했던 연구자들은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 가능성을 들어 일방적인 과학화 주장에 반박하였다.

姜永熙는『醫林』4호에 「漢醫學體系樹立小考 (陰陽五行의 氣化學과 生理學의 關聯性)」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 한의학은 元來陰陽術學이란 것인데 術學도 각각 그의 종별을 따라서 적응방법이 不同한 것이다. 內經天元五常篇 등은 천지만물의 기화 개론에 불과하고, 단 의학적 인신소천지만으로 체계를 세우지 않은 것은 易理와 天文으로서 百種術書의 기초학으로 간호할 시대였기 때문에 소소한 인신소천지란 것을 別途로 말할 필요가 없을 때다.
>
> 그러나 시대변천을 따라서 現時에는 어느 餘暇에 심오한 역리를 달한 연후에 의학을 본다는 것은 절대불가능하다. 그러므로 易理 陰陽을 不知한 초인학자라도 의학적 陰陽을 해석할 수 있는 요지로서 간단명료하게 정상적인 체계를 세우려면 첫째는 陰陽氣化로서 生理라는 것이 있으니 氣化學이 있어야 될 것이요 둘째는 정상적인 生理를 알아야 이상적인 病理을 알 것이니 한의학의 生理學을 陰陽五行의 자연공리에 적합하도록 체계를 완성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22].

姜永熙는 과거에 의학만 가지고 따로 체계를 세우지 않은 것은, 易理와 天文으로서 모든 학문의 기초를 삼았었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易理와 天文이 모든 학문의 기준이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에 있어서 陰陽에 기초한 체계를 세워 생리와 병리의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姜承熙는『醫林』18·19호에 「漢醫學體系樹立의 新學說(1)」[23]이라는 글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를 주장한 글이다. 이 글에서도 그는 한의학을 현대화하더라도 한의학의 기원 원리는 떠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柳大馨은『醫林』15호에서 수록된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下)」이라는 글에서 한의학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과학적 연구를 동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한의학의 정신에 있어서는 철학의 근간인

20) 姜承熙. 命門三焦圖理解의 基礎槪論(一). 醫林. 1955. 12호. p.17.
21) 洪一善. 虛實論에 對하여 醫林. 1958. 22·23호. pp.30-31.
22) 姜永熙. 漢醫學體系樹立小考 (陰陽五行의 氣化學과 生理學의 關聯性). 醫林. 1955. 4호. pp.3-4.
23) 姜永熙. 漢醫學體系樹立의 新學說(1). 醫林. 1958. 18·19호. pp.41-42.



www.kci.go.kr

> 陰陽을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결코 과학면의 체계적 경향까지 한의학의 정신에서는 멸시 또는 반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철학 가운데 있는 陰陽을 지적해서 이것을 특히 연구발전함으로써 한의학의 근본적 핵심으로 삼을 뿐이며 또 과학의 물리적 경향이 이 근본적 핵심 하에 합치 또는 융화될 수 있기를 구할 뿐이다. 이러한 정신은 이미 역사적 수련이 있으며 또 현대 자연과학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중략)…
>
> 그런데 근일 우리 학계에서는 한의학 과학화에 지나친 정신으로 도리어 한의학의 근본정신을 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 견해는 한의학의 陰陽的 전통을 철저히 파괴치 않으면 자연과학을 접수하기 어렵다고 오인하는 것 같다. 이것이 마치 의복을 바꾸어 입기 위하여 신체를 파괴시키며 垣墻을 修築하기 위하여 房室을 破壞하는거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한의학은 그 근본적 핵심을 잘 주의함으로써 발전 또는 현대화하여 과학문화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과학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陰陽의 진리로써 새로운 체계를 이룩할 수 있다[24].

柳大馨은 “철학 가운데 있는 陰陽을 지적해서 이것을 특히 연구발전함으로써 한의학의 근본적 핵심을 삼을 뿐이며 또 과학의 물리적 경향이 이 근본적 핵심 하에 합치 또는 융화할 수 있기를 구할 뿐이다.”라고 말하여 한의학의 근간인 陰陽이 과학적 연구와 배치되기 보다는 동반되기를 희망하였다. 그가 우려하였던 점은 당시 학계에서 한의학 과학화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었다. 한의계가 과학화 주장으로 쏠림은 도리어 한의학의 근본 체계를 망각하게 할 여지가 컸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의학의 陰陽的 전통을 철저히 파괴치 않으면 자연과학을 접수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의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한의학 개념의 현대적 연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柳大馨은 한의학의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한 한의학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3.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및 현대화

한의학의 발전적 연구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근대과학을 강조한 입장과 한의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반드시 대립적인 관계만을 형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의학의 특이성이 임상의학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현대적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주장들도 다수 제기되었다. 한의학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글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 한의학의 현대적 체계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1954년부터 1961년까지『醫林』에 실린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및 현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의 글들 목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1)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1956년 간행된『醫林』13호에는 李尙熙의「古醫書를 批評 修改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李尙熙는 한의학이 진보 발전되지 못함이 고인들의 학설을 신성불가침시 하여 비평을 가할 수 없었던 학문적 풍토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오늘날 斯學界가 진보 발전되지 못하고 쇠천한 명맥만을 僅히 이어오게 된 이유는 那邊에 있는 것인가? 물론 이조년간의 천의사상과 일정 삼십육년 간의 한의학 말살정책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것이나 그 최대원인의 하나로서 고인들의 학설을 신성불가침시하여 일호의 비평도 가함이 없이 거금 수백여 년 간을 무조건 맹종하여 왔음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25] 이 처럼 李尙熙는 과거의 학설을 맹종해 온 한의계의 학문적 경향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한의학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24) 柳大馨.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下). 醫林. 1958. 15호. pp.13-17.

25) 李尙熙. 古醫書를 批評 修改하라. 醫林. 1956. 13호. p.23.



www.kci.go.kr

표 3. 초창기 『醫林』에 실린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및 현대화' 관련 글들 목록

| 연도 | 권호 | 제목 | 필자 | 분류 |
|---|---|---|---|---|
| 1955 | 3호 | 독일한의학소식 | J.U.S | 1)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
| 1956 | 13호 | 내가 본 漢方醫學 | 鄭亨模 | 2) 한의학의 현대적 체계화 |
| 1956 | 13호 | 古醫書를 批評 修改하라 | 李尙熙 | 1)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
| 1958 | 14호 | 時代性과 漢方診療方式(上) | 申鉉德 | 1)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
| 1958 | 14호 |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上) | 柳大馨 | 2) 한의학의 현대적 체계화 |
| 1958 | 15호 |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下) | 李殷八 | 2) 한의학의 현대적 체계화 |
| 1958 | 16·17호 | 漢方診斷法의 要綱 | 韓世靖 | 1)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
| 1958 | 18·19호 | 漢醫學의 哲學性 | 河銀鑄 | 1)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
| 1958 | 22·23호 | 漢方醫의 根源이 되는 陰陽說(1) | 張載湳 | 1)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

고서에 玉不琢이면 不成器란 말이 있거니와 한의학 그 자체가 아무리 조화무궁하고 응용이 自在한 원리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원리의 응용이 합리화 하지 못하고 그 학리의 진수를 파악할 수 없다면 斯學의 무한한 발전과 융성이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고대 성인들의 위업을 추앙하고 그 학설을 眞摯한 태도로 연구비판하여 그 장점을 推奬하고 부분적이나마 비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이것을 수정하여 합리화시킴과 아울러 誰某라도 일견에 긍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학설을 수시로 연구 발표하여야 할 것이며 한의학 발전의 길이 또한 이에 있음을 역설하는 바이다[26].

李尙熙가 제시하는 방향은 고대 성인들의 업적을 존중하되 그 장점은 취하고 부분적이나마 비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이것을 수정하여 합리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고서라고 해서 무조건 추앙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李尙熙의 주장은 의가들 간의 다양한 논쟁을 통해 발전해 온 한의학의 학문적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볼 때, 한의학적 지식 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형태의 의학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해 온 것이었다. 따라서 현대에서도 한의학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申鉉德은 『醫林』 14호에 「時代性과 漢方診療方式(上)」란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申鉉德은 이 글에서 古書를 통해 한의학의 진찰 방식이 이전부터 발달해왔음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지식 기술이 국가 보건 정책과 의료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상당부분 이용되지 못해왔음을 지적하였다. 申鉉德은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보다 현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한방 본래의 진찰과 치료방식을 환원시키는 동시에 현대물질문명과 과학발전에 호흡을 맞추어가며 더욱 발전"[27]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각 개인이 그 기술을 세간에 공개하지 않는 한의학계의 악습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의학의 치료 기록들이 보편적인 학문 체계의 확립으로 이어지지 않음은 한의학의 현대적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라는 평가이다.

韓世靖은 『醫林』 16·17호에 실린 「漢方診斷法의 要綱」이라는 글에서 한방진단법의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辨證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陰陽家의 陰陽五行說과 한의학의 陰陽五行說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6) 李尙熙. 古醫書를 批評 修改하라. 醫林. 1956. 13호. p.23.

27) 申鉉德. 時代性과 漢方診療方式(上). 醫林. 1958. 14호. pp.4-6.



www.kci.go.kr

한방진단법은 양방진단법과 그 방식을 비교하면 각기 장단이 有하다 하여도 辨證에 空疎한 감이 不無한 것이니, 진찰방법이 가장 과학적이라야 증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증상이 정확하여야 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아직까지 일정한 진단방법이 醫者間에 통일 되지 못하고, 各執所見으로 애매한 방법이 병행되고 있음은 이 五診法에 대한 과학적 견해가 부족한 까닭인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의학 자체가 古再醫學이니마치, 이 의학이 肇建되는 內經시대부터 음양가의 陰陽五行說이 의학체계에 錯綜되어 無稽한 추상적 진단법이 내포되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을 엄밀히 비판하여 순정한 의학 원리를 구명하여야 정확한 과학적 진단법이 규정될 것이다. …(중략)…

한방진법이 이같이 亂眞된 것은, 이 의학의 고전이 신성화하여, 후세 의가들이 訓話로 신봉하여 온 까닭인 것이니 이제는 고증의학으로 훈화의 폐습을 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世襲的訓話醫者들이 陰陽五行이라면 동양철학인가하여, 言必稱 한의학은 철학에 근거를 두고 양의학은 과학에 토대를 쌓았다하여 분분한 대립을 세우고 있으나 陰陽五行이 철학이 아니요, 과학이니만치 한의학도 원래 과학에 토대를 둔 것이다. 한의학의 陰陽五行은 음양가의 陰陽五行과 다른 것임으로 한의학의 陰陽五行은 한의학의 근간이 되어 있으나 陰陽家의 陰陽五行은 無稽한 誕說임으로 한의학의 고질이 되어 있는 것이니 이것을 구별하여야 한방진법이 정확하게 구명될 것이다[28].

韓世靖은 아직까지 일정한 진단방법이 한의사들간에 통일되지 못하고, 명확한 변증체계가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內經시대부터 陰陽家의 陰陽五行說이 의학 체계에 착종되어 그들에 의한 추상적 진단법이 내포된 까닭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의학의 陰陽五行은 철학이 아니라 과학적인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반적으로 陰陽五行을 한의학의 철학적인 특성으로 인식했던 다른 글들과 구별된다. 그의 주장을 따른다면 비판적 연구를 통해 陰陽五行의 철학적 요소와 과학적 요소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한의학의 실용적 의학 원리와 과학적 진단법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張載湳은『醫林』22·23호「漢方醫의 根源이 되는 陰陽說(1)」에서 韓世靖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그 역시 陰陽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非과학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으며, 陰陽은 논법과 용어가 현대과학과 상이할 뿐이지 과학임에는 틀림없음을 주장하였다.

이-陰陽이라면 단지 두 글자로 되였지만은 그-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역을 안다고 하는 고대문학에 능한 陰陽학자로서 아무리 重言復言으로 長廣舌의 설명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납득시키지 못하니 이는 그-논법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폐단이 있고, 所謂現代文學에 능한 과학자로서는 너무 현대적 논법에만 편중하여 陰陽說을 전연 부인함에 기인하는 결점이 있다. 그러므로 공정한 입장에서 고대문학파의 陰陽論을 맹종할 수가 없고 현대과학파의 陰陽否認論도 讚揚을 할 수가 없이 가장 평이 간명한 현대어로써 이를 比較略述하려하며 다만 의학에 관련된 것만을 주제로 하려한 것이다. …(중략)…

그-내용으로는 우주의 자연법칙(천지의 도)을 그려낸 학문인데 즉 천문 지리와 인사 및 사물의 변화(變易交易生死消長)하는 微妙의 理法으로서 丕泰損益과 剛柔得失이 모두 상대성이 有하다는 것이니 此를 陰性과 陽性으로 구별한 대상적 표어로써 논설한 것인바 즉 현대과학의 술어에 비하여

28) 韓世靖. 漢方診斷法의 要綱. 醫林. 1958. 16·17호. pp.6-7.



www.kci.go.kr

이는 고대과학의 술어이다. 그런데 소위 근대과학자가 현대과학만을 과학이라 부르고 고대과학을 非과학이라 하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 何故냐하면 이-고대과학은 논법과 용어가 현대과학과 상이할 뿐이지 과학임에는 틀림없다[29].

張載湳은 陰陽論을 非과학으로 비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陰陽說을 설명하는데 있어 난해한 측면이 있었고, 과학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陰陽說을 전면 부인하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는 고대의 陰陽論을 맹종하지도 않고 현대 과학파의 陰陽否認論도 추종하지 않은 채 이 둘을 의학에 한정한 陰陽說을 평이한 서술로 풀어냄으로써 조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의학에 한정한 陰陽說은 과학적 인식을 통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河銀鑄는『醫林』18·19호에 실린「漢醫學의 哲學性」이란 글에서 한의학과 양방의학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가 강조하는 양방의학과 비교되는 한의학의 모습은 오히려 한의학의 철학적 특징이었다.

「인체는 부분적인 요소의 총화 그것 이상의 것이다.」이 말은 한의학의 유일한 특징을 설명하여 주는데 충분하다. 인체의 각 기관 급 조직을 남김없이 전부 합하여도 완전한 인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 즉 물리화학적인 요소의 총화 이외에 거기에는 다른 어떠한 관계가 개입하고 있음을 지칭하고 있다. 陰陽說, 五行說의 相生, 相克, 五運六氣學 등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한의학 유일의 학설들이다. 한의학은 서의학에 비하여 실증적이 아닌 이면에 이와 같이 우주의 원리에 合一하는 특수한 학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고도로 분화하여 전체성을 잃은 서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의학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내과질환에 있어서 何장기의 이변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병이전에 발병 가능할 조건과 환경의 성립이 선행하고 신체전반적인 균형의 상실과 전체적인 생명력 생활력의 감퇴가 이를 조장하는 것이다. 然이나 서의학에서는 대부분의 질환을 국부적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왔던 것이다. …(중략)…

이와 반면에 한의학의 이론으로는 이 여러 기관이 인체라는 한 개체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항상 전체와 관련성이 있다. 어느 기관도 전체에서 분리되어서는 생명의 특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만큼 이러한 생명현상은 한의학의 이론과 사실상 합치된다. 신체 각 기관의 상관관계를 따라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의 특장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이상 述한 바와 같이 서의학이 조직적인 과학이라 하면 한의학이란 학문자체는 철학적인 특질이 허다한 고로 철학이라고 하고 싶다. 한의학이 서의학과 구별되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30].

河銀鑄는 한의학과 양방의학의 장단점을 비교함에 한의학이 현재 양방의학에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한의학 또한 양방의학의 장점은 수용해야 함을 말하였다. 그렇지만 한의학에는 한의학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가 설명한 한의학의 특징은 철학적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볼 때 한의학이 철학적이라는 것이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이 가지는 철학적 특성으로 인해 한의학이 임상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31]. 그가 말한 한의학이 가지는 철

29) 張載湳. 漢方醫의 根源이 되는 陰陽說(1). 醫林. 1958. 22·23호. pp.34-35.

30) 河銀鑄. 漢醫學의 哲學性. 醫林. 1958. 18·19호. pp.24-29.

31) 이점에서 '과학'과 '철학'의 정의가 앞선 韓世靖과 河銀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河銀鑄이 이 글에서 말하는 '과학'은 근대 과학의 좁은 범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韓世靖이 앞선 글에서 말한 '과학'은 한의학의 합리성을 포괄



www.kci.go.kr

학적 특성은 "인체는 부분적인 요소의 총화 그것 이상의 것"을 말한다. 양방의학이 인체 각 기관 및 조직을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지식체계를 완성해 왔음에 반해 한의학은 이들 간의 관계를 陰陽五行說을 활용해 밝히려 했다. 따라서 환원적 특성으로 전체성을 잃은 양방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의학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河銀鑄의 주장이다.

J.U.S라는 이니셜로『醫林』3호에 기고된 글은 독일 한의학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 눈에 띈다.「獨逸 漢醫學消息」이란 제목의 글로, 당시 독일에서 행해지던 한의학 연구를 소개한 글이다. 그는 독일에서 한의학을 도입한 것이 십여 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 발전이 괄목하다고 전하였다.

> 독일의 한방의학을 실지 운용하게 된 역사는 불과 10개년 내인데도 불구하고 실지 의학의 발달이 동양에 비하여 못지않게 눈부신 바가 있다. 고전의학을 기본으로 하여 陰陽五行說 같은 것을 몹시 根氣있게 흥미를 가지고 특히 五臟의 相生相克說은 흡사하기도 근대의 「Polyorgaus Pathogie Rel-atons Pothologie」(諸기관에 대한 관련성의 병리학이란 뜻)와 같다고 □美하면서 眞執히 연구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해설과 또는 特獨히 □案한 연구서도 다수히 출판되어있고 특히 침술의학이 급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에 대한 사실을 보고 들은 대로 적어보기로 하겠다.
> …(중략)…
> 이곳은 대개가 실지 의가들의 연구가 □□함인지 실지 의가들의 □□가 흔히 눈의 띄며 치료 □□□도 창립한데가 오래라고 한다. 서적의 내용은 고전의서를 충실하게 재현하기를 노력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한 현대적으로 自己自在로 머리깊이 연구하여 실지 면에 値價있는 □□□□하는 것을 주로 소중히 느낀다고 한다. …(중략)…
>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장서를 가지고 이것을 독파하여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의학자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곳 의학자들을 접촉하여 봄에 서적만을 많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며 그것보다는 타인의 의견과 새로운 연구에 □□이 □□□□하는 편이면, 물론 연구한 文獻을 몹시 소중히 느낀다. 반면 자기 머리로서 연구 창안함을 주요골자로 삼고 있는 인상을 준다.
> 우리나라 의학자들은 위대한 古典吟味에 합도되고, 甘夢에 사로잡혀 좀처럼 신분야 개척면을 헤치고 나갈 바를 모르고 있으나, 이곳은 실지 환자 하나하나를 세밀히 검토하여 여러 각도로 비교 연구하여 새로운 각도로 신분야의 실지 □□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동양에서 독일로 한방의학을 습득하려 오지나 않을까 □□하는 의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는 아니 될 것이다[32].

J.U.S는 당시 독일의 한의학 연구가 古典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陰陽五行說 같은 한의학 이론에도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한의학 이론 가운데 五臟의 相生相克說은 독일의 'Polyorgaus Pathogie Rel-atons Pothologie' 즉, "諸기관에 대한 관련성의 병리학" 개념과도 유사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의학 이론이 독일 병리학과도 관련성이 있음은 한의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만 한국 한의학계의 긍정적인 면만을 말하지는 않았다. 독일의 한의학 연구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연구가들은 古典의서를 충실히 연구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보다는 될 수 있는 한 현대적으로 실증하려고 노력한다고 전하였다. J.U.S는 당시 한국의 연구자들이 단순히 "많은 장서를 가지고 이것을 독파하여 많은 것을 아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

하는, 그래서 한의 임상 또한 과학에 포함될 수 있는 넓은 범주를 뜻하는 것이다.

32) J.U.S. 獨逸 漢醫學 소식. 醫林. 1955. 3호. p.15.



www.kci.go.kr

### 2) 한의학의 현대적 체계화

『醫林』13호에는 鄭亨模의 「내가 본 漢方醫學」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기에 한의학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임을 설명하며, 그 방안으로 한의학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 한방의학이 서방의학보다 치료와 보건에 있어서 그 효과가치가 최소하였다면 그것은 자멸하였거나 또는 퇴보 일로를 걸었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서방문명에 현혹도취 되였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西洋化熱을 식히고 자신들의 환경을 보살필 때에 한방의학을 다시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있어서 한방의학은 심원한 절리와 영험을 정리하고 시비장단을 가려서 이것을 체계화하고 이론적 가치를 賦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중략)…
>
> 첫째로 한방 의학가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이 긴요하다.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활동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중략)… 한방의학은 기천년전으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전통을 가진 훌륭한 학문이라고 하지만은 그 발전의 족적을 더듬어 본다면 수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몇 세대를 격한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얼마만큼 정리되고 더 진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아무리 한의학이 효용성 있는 학문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십 세기 동안 사학문이 새로운 분야의 개척적 연구와 개성학술의 체계적 집성을 게을리 하였다면 퇴보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략)…
>
> 둘째로는 문외한으로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한방의학을 널리 공개하고 체계화하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현대사회에서 생활하고 문물이기와 학술의 혜택을 받고 있다. …(중략)… 한방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각자가 群雄割據格으로 고립적인 성주가 되어 가지고 분산되어서 상호간에 학구적인 또는 기술적인 교류와 공개발표가 전연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도리어 漢醫學家 秘方이라하여 무의미한 고립주의와 배타주의를 고집하는 까닭에 상호간에 학술교류와 공개토론의 기회가 전무한 형편이니 이와 같이 하여가지고는 그 장래가 심히 우려함이 적지 않다. 상호간에 연구결과를 이론화하여 이것을 학계에서 공개리에 연구 토론하여 나가는 민주적인학술연구가 시행되고 학술연구기고나 조직적 활동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한의학의 장래에는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울 것이며 새 시대에 임하여 한방의들이 미미한 개별적인 각자활동을 지양하고 사학계를 위한 협동정신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과학적 위력을 지닌 서방의학의 진출로 인한 몰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방의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진 것은 무엇보다도 學理를 현대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중략)…
>
> 셋째로는 한방의학을 현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금일 우리들은 서구의 제도와 생활양식에 의하여 사회활동은 유지하고 있으며 서양문물을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방의학만이 진찰이나 처방 또는 투약에 있어서 옛날 방식 그대로를 踏襲할 것이 아니라 현대적 방식을 연구 채용하여 그 효과를 올려야 할 것 같다. …(중략)… 한방의학만이 시대에 초연할 수는 없을 것이니 사계의 선학자들은 새 시대와 보조를 맞춰서 斯學을 현대화함으로서 斯學자신의 발전과 효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심오한 동양의 학리를 널리 세계에 소개하도록 까지 신 분야를 개척하기를 付託하는 바이다[33].

33) 鄭亨模. 내가 본 漢方醫學. 醫林. 1956. 13호. pp.12-13.



www.kci.go.kr

鄭亨模가 이 글에서 첫째로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먼저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가 볼 때 당시의 상황은 과거 한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때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때문에 한의계는 "학구적 이론과 실제적 기술면에 걸쳐서 한방의들의 그 자신들의 시대적 공간적 위치와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했다. 둘째는 한의학을 널리 공개하고 체계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의계가 공통된 체계를 지니지 못하고 각 학파마다 각기 나뉘어 상호간에 학구적인 또는 기술적인 교류와 공개발표가 전연 없음을 비판하였다. 한의학 學理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타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호간에 학술교류와 공개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수적임을 鄭亨模는 역설하고 있다. 그는 세 번째로 한의학을 현대화하여야 함을 말하였다. 과거와는 다른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모습만을 고수하는 것은 대중과의 괴리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계 자체적으로 체계를 구성한 이후, 이를 새로운 연구 방식을 채용하여 보다 현대적인 한의학의 모습을 꾀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柳大馨은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上)」에서 한의학의 현대화 방안으로 '간이화', '체계화'를 언급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한의학의 현대화 방안을 언급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한의학의 현대화 방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의학의 현대화를 마치 "해부학, 세균학 등 물리적 현상인 자연과학화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그 대척점에서 "고색창연한 태도로 성현의 典方만 무조건 존신하고 新世代新病麗에 대비할 하등의 학술연구가 없이 深奧 難覺한 고전의 문구 그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학설만 주장"만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柳大馨은 이 같은 이분법적 논리를 비판하였고, 대신 한의학 자체를 현대적으로 체계화해야 함을 밝혔다.

> 우리 학계에서 일반사회에서나 한의학 현대화는 동일한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의학의 현대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것은 한의학의 현대화라고 할 때 그 말이 어떠한 뜻으로 쓰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생각하고 있듯이 한의학의 현대화라면 마치 해부학 세균학 등 물리적 현상인 자연과학화처럼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한의학에는 한의학적 과학과 한의학적 체계가 있다. 그러면 한의학의 근본적 원리를 잘 알아서 현대의학과 비교비판을 잘하여야 한다. 덮어놓고 과학 과학하며 물리현상적인 자연과학만이 과학이요, 그 이외는 다 비과학이라고 인정하여 한의학에 정신이 될 만한 음양학 같은 것을 門外視하여도 忌本을 면치 못할 것이요.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변천됨에 따러 질병을 문명병이라 현대병이라 하여 다각도로 변환 또는 만연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 고색창연한 태도로 성현의 典方만 무조건 존신하고 新世代新病麗에 대비할 하등의 학술연구가 없이 심오 난각한 고전의 문구 그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학설만 주장하여도 역시 孤陋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즉 고금 의학을 照對 분석하여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현대의 알맞도록 간이화시키고 체계화시켜 의학적인 가치를 사회에 알려서 일반적으로 한의학의 사회적 존재가 크다는 것을 믿어지도록 우리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한의학 발전의 새로운 방향이며 발전이다. …(중략)…
>
> 그러면 지금 우리 한의학에 새로운 방향은 한의학의 근본적 원리가 되는 陰陽五行의 根幹을 망각하지 말고 오직 古典의 심오한 文辭와 복잡한 條理만을 簡易闡明化시키고 발전되지 못한 점을 연구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도록 노력하는데 있으리라고 믿는다. 만약 현대화라고 해서 무조건 시대조류에만 맹종하여 陰陽五行은 腦頭에 두어보지도 않고 물리적 현상인 자연과학만 주창하고 술어까지도 영어 등으로 우리 한의학계에 알맞지 않는 술어를 쓴다면 이것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 발전을 본다고 하



www.kci.go.kr

> 기보다는 도리어 한의학의 정신을 索亂시켜 한의학의 장래를 파괴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한의학이다. 한의학적 과학과 한의학체계를 세워야한다[34].

柳大馨은 "한의학에는 한의학적 과학과 한의학적 체계가 있다. 그러면 한의학의 근본적 원리를 잘 알아서 현대의학과 비교비판을 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의학을 현대화하되, 한의학 본연의 체계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의학과 현대의 의학을 대조 분석하여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가 제시한 한의학 체계화 방안은 한의학을 현대의 알맞도록 간이화시키는 것이었다. "한의학의 근본적 원리가 되는 陰陽五行의 根幹을 망각하지 말고 오직 古典의 심오한 文辭와 복잡한 조리만을 簡易闡明化"시킴으로서, 현대에 있어서 새롭게 한의학적 과학과 한의학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李殷八은 「漢醫學에 對한 새로운 思考方式(下)」라는 글에서 한의 의학이론의 통일과 병리의 정리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한방의학이 의서 간에, 그리고 의사간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였다.

> 吾人은 이에 한방의학 자체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方途로서 한방의학의 도서관의 설치와 한의 종합병원의 건설과 그리고 한의학연구소의 시설과 또 하나 한의학박사학위의 創定을 제창하는 바이다. …(중략)…
>
> 원래 한방의학은 논리의 전개에서 귀납되는 소위 과학적인 의학이 아니다. 그보다도 동양철학적인 기반 우에서 累千年間의 체험이 집대성된 경험의학인 것이다. 그럼으로 증후학과 치유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바이다. 그렇다하여 병리를 도외시하여도 무방할 수 없는 바이니 새 世代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만인이 함께 수긍할 수 있는 병리학을 체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는 素問, 靈樞, 內經 등 古典은 물론 漢隋 이래의 諸書를 현대화하여 소화에 편리케 하고 다시 서의학에서 생리학과 해부학을 섭취하여 동서 혼융의 새 이론을 창설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한방의학의 긍지를 말살하는 논법이라 공격하리라. 그러나 서의학이 우리 한방에서 상용되고 있는 약재에서 성분을 추출하여 임상에 응용함으로써 장족적 발전을 수행하였다는 실례에 비추어볼 때 한방의학이 서의학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한다하여 무슨 허물이 있을 것이냐. …(중략)…
>
> 그럼으로 醫方의 통일이 필요하게 되는 바이다. 한의학연구소는 이 점에 있어서 종합병원과 밀접한 연락 하에 가장 효능이 우수하고 가장 신속한 처방을 채택하여 이를 집성하여 개인개업의 참고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
> 그럼으로 醫方의 통일이 필요하게 되는 바이다. 한의학연구소는 이 점에 있어서 종합병원과 밀접한 연락 하에 가장 효능이 우수하고 가장 신속한 처방을 채택하여 이를 집성하여 개인개업의 참고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
> 끝으로 한의학박사학위의 創定이다. 서의에 있어서 의학박사가 있어야할진댄 한의에게도 또한 박사의 학위제도가 있어야 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35].

李殷八은 한의학이 체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漢方醫學의 圖書館의 設置, 漢醫綜合病院의 建設, 漢醫學研究所의 施設, 그리고 漢醫學博士學位의 創定이었다. 먼저 한의학 도서관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당시 한국에는 한의학 서적을 제대로 구비해 놓은 곳이 부족했다. 한의학을

34) 柳大馨.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上). 醫林. 1958. 14호. pp.7-9.

35) 李殷八. 漢醫學에 對한 새로운 思考方式(下). 醫林. 1958. 15호. pp.21-24.



www.kci.go.kr

종합하는 작업을 위해 한의학 도서관의 설치는 필수적이었다. 또한 한의종합병원과 한의학연구소의 설치도 마찬가지였다. 한의학 임상과 한의학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요구되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원래 한방의학은 논리 전개에서 비롯되는 소위 과학적인 의학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한의학은 동양철학의 기반 위에서 오랜 기간의 의료경험이 축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그는 한의학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만, 병리에 있어서는 현대에 수긍할 만한 체계가 세워져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았다. 따라서 李殷八은 "素問, 靈樞, 內經 등 古典은 물론 漢隋 이래의 諸書를 현대화하여 소화에 편리케 하고 다시 서의학에서 생리학과 해부학을 섭취하여 동서 혼융의 새 이론을 창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한의학의 치료적 가치는 인정할 만하지만, 현대에서 수긍할만한 병리적 체계를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방의학과의 협력 속에 체계를 구성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 Ⅲ. 결론

지금까지『醫林』誌를 통해 1950년대에 있었던 동서의학 논쟁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가해졌던 과학화, 체계화 요구에 대해 한의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근대과학에 기초하여 한의학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한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한의학의 임상적 효용성을 근거로, 한의학 자체의 정체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한의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현대화 할 것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근대과학을 강조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체계화'에 대한 논의였다. 趙玄成과 金庚烈, 그리고 金衡翼은 한의학이 앞으로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金庚烈은 한의학의 논리학적 체계가 완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과학적 분류 및 세균학적, 현미경적 표현을 통해 한의학을 보다 합리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양의사인 金衡翼은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연구될 때에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두 번째인 '한의학의 이론 체계 비판'에 대한 주장들도 앞선 글들과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李殷八은 한의계 이론의 난삽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복잡하고 통일되지 않은 한의학 이론들은 한의학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許松菴은 한의학의 이론적 개념이 陰陽家나 四柱觀相家들이 활용하는 陰陽五行論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한의학 이론의 의학적 가치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車日甫의 의견은 보다 직설적이었다. 그는 한의학의 이론적 요소가 철학적인 가설이고 선험적 공론일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한의학 자체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한의학을 해체하여 근대과학적 방식으로 재조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의학 정체성을 강조한 주장들도 두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한의학의 특성을 강조'한 글들이었다. 白泰炯은 한의학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의학 이론을 토대로 시행한 한의 임상이 실질적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咸珍求 역시 제대로 한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陰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의학의 정체성이 임상적 효용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崔海鍾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그는 한의 임상이 효용성을 보이는 것은 이미 한의학이 과학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崔海鍾의 주장은 경험적 측면까지도 과학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과학의 의미를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姜承熙와 洪一善은 좁은 의미의 근대과학만으로 한의학을 해석했을 때 발생하는 한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들은 근대과학의 범주에서 파악할 수 없는 한의학의 가치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한의학의 임상경험은 비록 근대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우수한 임상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한의학 정체성을 강조한 글들 가운데 두 번째는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에 대한 것이었다. 姜永熙는 한의학을 현대화 하더라도 기원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에 있어 陰陽에 기초한 체계를



www.kci.go.kr

세워 생리와 병리의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柳大馨은 한의학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과학적 연구를 동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주장은 한의학의 비판적 수용 및 현대화 논의였다. 그 가운데 먼저 '한의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글들이 있었다. 李尙熙와 申鉉德은 지금까지의 한의학의 가치를 존중하여 그 장점은 취하되, 비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현대 과학 문명과 더불어 이를 수정하여 합리화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韓世靖과 張載滇은 한의학의 陰陽五行은 陰陽家에 의한 陰陽五行說과 구별되어야 하며, 철학이 아닌 과학임을 주장하였다. 즉, 陰陽五行을 의학에 한정해서 보았을 때에는 과학의 범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과학은 분명 근대과학의 범주와는 다른 것으로, 임상적 효용성을 포괄하는 넓은 범주의 과학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한의학 이론은 임상을 토대로 형성된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반면 河銀鑄는 한의학이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오히려 한의학의 철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오히려 양방의학과 비교되는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는 한의학의 철학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앞선 韓世靖과 張載滇와 비교해 봤을 때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때 활용되는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를 과학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의학의 현대적 체계화'와 관련한 주장들이 있었다. 鄭亨模는 한의계가 공통된 체계를 지니지 못하고 각 학파마다 각기 나뉘어져 있는 것은 상호간에 학구적인 또는 기술적인 교류와 공개발표가 전연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는 한의계 자체적으로 체계를 완성한 이후에, 과학적 연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여겼다. 柳大馨 역시 한의학적 과학과, 한의학 자체적인 체계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한의학이 현대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학 이론 체계의 '간이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李殷八은 한의학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만, 병리에 있어서는 현대에 수긍할 만한 체계가 세워져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병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양방의학과의 협력 하에 실증적인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한의학의 발전 방향이 논해졌지만, 이들 논의가 꼭 타협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한의학의 현대화 논의와 관련하여 사용된 '과학'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화 관련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을 일방적으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겼던 입장에서 사용한 과학의 개념은 합리론적 사고에 바탕을 둔 협소한 의미의 근대과학을 의미한다. 의학에 있어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에 기초한 근대의학을 의미할 것이다. 근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전, 그리고 병리적 기전을 통해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가 실증될 수 없다면, 이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의학의 陰陽五行이나 精, 氣, 神, 그리고 命門, 三焦와 같은 개념들은 명확한 물질적 대상을 지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대의학의 입장에서는 비과학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한의학의 임상적 효용성을 근거로 한의학 역시 과학임을 주장한 의견들도 있었다. 이때 사용된 과학의 의미는 의학의 경험론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주의 과학을 뜻한다. 한의학의 陰陽五行과 같은 이론적 토대가 비록 근대과학으로 완전히 실증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陰陽五行 개념을 활용한 한의 임상 치료가 분명한 효과를 보인다면, 한의학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의 임상을 시행함에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가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한의학의 과학화에 관한 상반된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의미의 '과학'으로 한의학을 대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협소한 의미의 과학



www.kci.go.kr

으로 한의학을 바라볼 경우, 한의학은 근대과학·근대의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닐 뿐이다. 반면 경험론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과학으로 한의학을 대할 경우 한의학은 한의 치료의 임상적 효용성을 증명함으로써 과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한의학의 존재가치에 대한 물음과도 연결된다. 한의학이 현대에 존재해야할 이유가 임상적 효용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한의학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됨으로써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가 한의 임상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한의학 자체의 체계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정리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의학을 연구함에 있어 양방의학과의 교류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의학과 양방의학의 두 의학체계가 대립하는 것이 상호간에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꾸준한 상호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이를 통해 기존에 관찰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하였다. 의학에 있어서는 '과학'의 범주가 점차 넓어져 기존의 협소했던 근대의학 뿐 아니라 경험론적 측면까지도 반영한 근거중심의학까지도 인정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의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한의학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협소한 환원론적 과학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앞으로는 보다 열린 관점에서 한의학의 과학성과 한의학의 임상적 효용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 참고문헌


<논문>

1. 이태형. 보완대체의학 및 통합의학의 정의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1.
2. 정기용. 해방 후 한의사 제도 성립 과정 -1951년 국민의료법 법안 제정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 裵元植. 創刊辭. 醫林. 1954. 1호. p.1.
4. 趙玄成. 今後漢醫學의 展望. 醫林. 1955. 5호. p.4.
5. 金庚烈. 세계문화와 동방의학. 醫林. 1956. 13호. pp.7-8.
6. 金衡翼. 내가 본 漢方醫學. 醫林. 1958. 15호. p.6.
7. 李殷八. 漢醫學에 對한 새로운 思考方式(上). 醫林. 1958. 14호. pp.10-11.
8. 許松菴. 漢方醫學의 歷史的由來(上). 醫林. 1958. 16·17호. pp.19-22.
9. 車日甫. 神秘主義醫學의 批判과 漢醫學의 去就. 醫林. 1958. 18·19호. pp.9-14.
10. 白泰炯. 漢醫學에 對한 考察. 醫林. 1954. 1호. pp.3-4.
11. 崔海鍾. 陰陽學의 現實性. 醫林. 1955. 10호. p.4.
12. 咸珍求. 東西醫學對論(3). 醫林. 1955. 11호. pp.21-22.
13. 姜承熙. 命門三焦圖理解의 基礎槪論(一). 醫林. 1955. 12호. p.17.
14. 洪一善. 虛實論에 對하여 醫林. 1958. 22·23호. pp.30-31.
15. 姜永熙. 漢醫學體系樹立小考 (陰陽五行의 氣化學과 生理學의 關聯性). 醫林. 1955. 4호. pp.3-4.
16. 姜承熙. 漢醫學體系樹立의 新學說(1). 醫林. 1958. 18·19호. pp.41-42.
17. 柳大馨.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下). 醫林. 1958. 15호. pp.13-17.
18. 李尙熙. 古醫書를 批評 修改하라. 醫林. 1956. 13호. p.23.
19. 申鉉德. 時代性과 漢方診療方式(上). 醫林. 1958. 14호. pp.4-6.
20. 韓世靖. 漢方診斷法의 要綱. 醫林. 1958. 16·17호. pp.6-7.
21. 張載湳. 漢方醫의 根源이 되는 陰陽說(1). 醫林.




www.kci.go.kr

1958. 22·23호. pp.34-35.
22. 河銀鑄. 漢醫學의 哲學性. 醫林. 1958. 18·19호. pp.24-29.
23. J.U.S. 獨逸 漢醫學 소식. 醫林. 1955. 3호. p.15.
24. 鄭亨模. 내가 본 漢方醫學. 醫林. 1956. 13호. pp.12-13.
25. 柳大馨. 漢醫學에 대한 새로운 思考方式(上). 醫林. 1958. 14호. pp.7-9.
26. 李殷八. 漢醫學에 對한 새로운 思考方式(下). 醫林. 1958. 15호. pp.21-24.

<단행본>
1. 맹웅재 외 15人. 한의학통사. 경기도. 대성의학사. 2006. p.516, 534.
2.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경기도. 도서출판 들녘. 2011. pp.234-236.



www.kci.go.kr